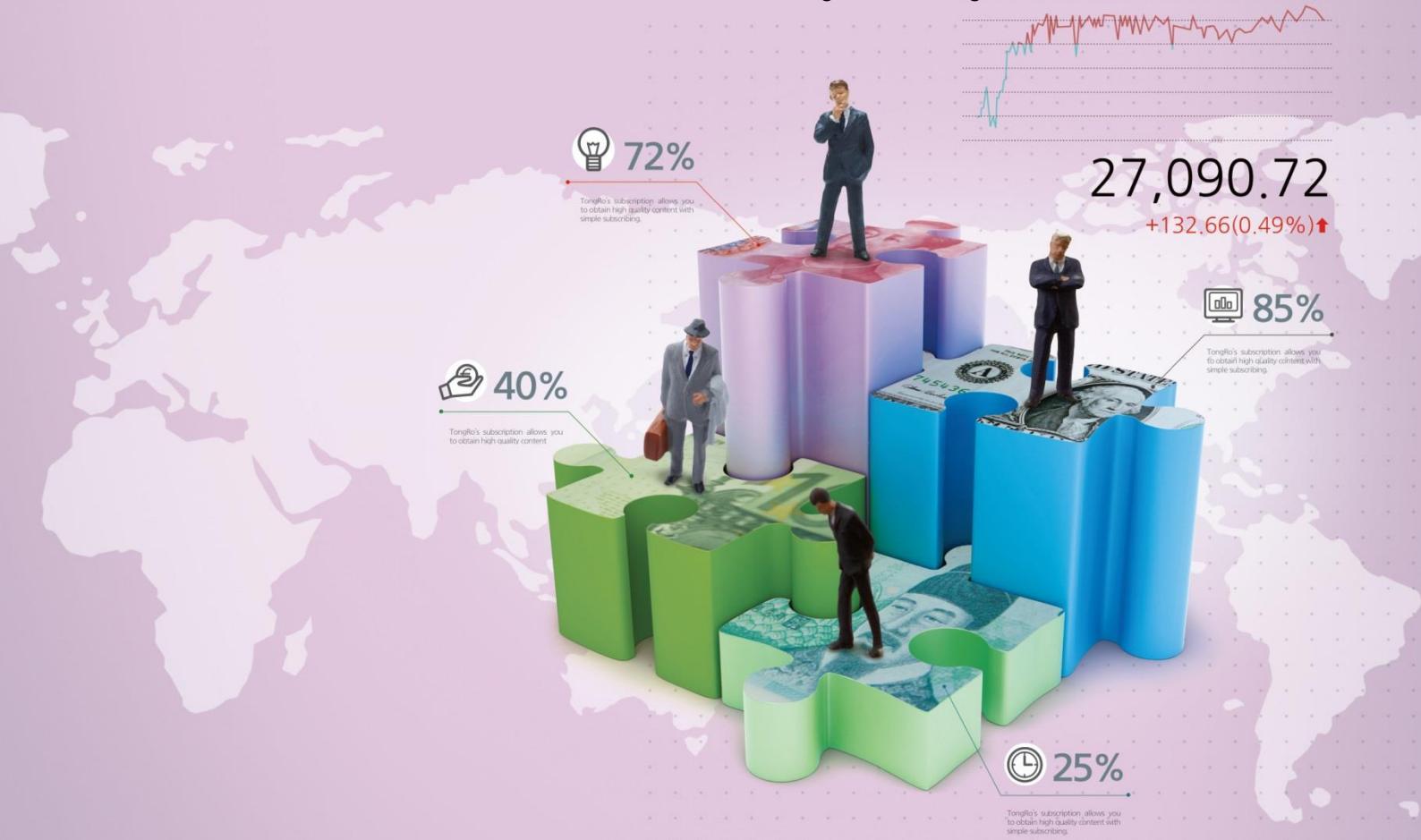


Fed Watcher

상승 추세로 돌아온 글로벌 부채

Part I Funds Watcher

Part II Fed/Issue Watcher Global Debt Is Returning to its Rising Trend



Money & Policy Tracker

 <p>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p>	노르웨이 국부펀드, UBS 최대 주주 등극 (2023.09.12)	4P
	<p>노르웨이의 1.4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UBS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 자리에 등극. S&P캐피탈IQ에 따르면 NBIM은 미국 투자자 Dodge & Cox와 블랙록을 제침.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이후 주주 및 투자자들은 UBS가 해당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이익에 관심. 한편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통한 회계 이익을 바탕으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인 290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6개월 전 크레디트 스위스를 구제하기로 합의한 후 주가는 30% 이상 상승</p>	
	사우디 국부펀드, 인도 사무소 설립 및 벤처 투자 추진 (2023.09.12)	5P
	<p>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인도 현지에 국부펀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더불어 VC를 통해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힘. 사우디의 투자부 장관은 인도-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몇 주 내로 인도에 대표단을 파견해 투자 기회를 탐색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VC를 통해 사우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 인도 상공부 장관 역시 여러 투자 회사 및 관료들이 협력할 수 있는 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이라 밝힘</p>	
 <p>Louisiana State Employees' Retirement System</p>	미국 공적 연기금들, 주식 통한 투자 수익률 복구 (2023.09.13)	6P
	<p>미국 공적 연기금들은 6 월 30 일 회계연도 말 기준 인상적인 수익률을 보고. '23년 운용자산 10 억 달러 이상인 65 개 연기금들의 중간 수익률은 +7.6%로 전년 -5.2% 대비 좋은 성적을 발표. 해당 연기금들이 +2.2%~+11.7% 사이의 흑자 수익률을 기록, 대체 투자에 노출이 적고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들이 가장 좋은 성적 보고. 특히 LASERS는 주식 부문 투자에서 +17.4%의 수익률을 기록</p>	
	코네티컷 주 연금신탁펀드, FY23 8.5% 수익률 기록 (2023.09.14)	7P
	<p>코네티컷 주의 연금신탁펀드는 23 년 회계연도 동안 벤치마크 5.9%를 상회하는 +8.5%의 수익률을 보고. 현재 493 억 달러를 투자하는 당 펀드는 3, 5, 10 년의 기간 동안 각각 +7.6%, +6.1%, +7.4%의 연 수익률을 기록, 모두 벤치마크인 6.9%, 6%, 7.1%를 상회. 펀드는 FY22 에 -7.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선진국 주식 부문 투자에서 +20.4%의 수익률을 기록. 부동산 부문 및 사모펀드 각각 -2.8%, -2% 기록</p>	
	고온: 주택시장의 새로운 변수 (2023.09.17)	9P
	<p>CEPR은 기온과 주택 시장의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탈리아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면 약속 데이터와 온라인 광고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고온의 날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온라인 검색이나 직접 집을 탐색하는 행위가 축소되고 평균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밝힘. 이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주택으로 가계의 선호가 전환한다는 것을 시사</p>	
	상승 추세로 돌아온 글로벌 부채 (2023.09.13)	12P
	<p>IMF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전 세계 부채량을 분석. 2년 연속 부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원래 높았던 코로나 판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 현재 전 세계 부채량은 235조 달러로 2019년 대비 9%p 높음. 중국의 늘어나는 부채는 전 세계 부채량에 큰 영향, 부채 대 GDP 비율 미국과 비슷한 레벨. 개발도상국들은 2007년 이후 부채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높은 부채에 시달림.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여력을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을 촉진</p>	

Part I

Funds Watcher

글로벌 집행기관 동향

최근 업데이트 된 글로벌 집행기관들(국부펀드, 연기금,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국부펀드 (Sovereign Fund)

- ✓ 노르웨이 국부펀드, UBS 최대 주주 등극
- ✓ 사우디 국부펀드, 인도 사무소 설립 및 벤처 투자 추진

연기금 (Pension Fund)

- ✓ 미국 공적 연기금들, 주식 통한 투자 수익률 복구
- ✓ 코네티컷 주 연금신탁펀드, FY23 8.5% 수익률 기록



Funds Watcher

노르웨이 국부펀드, UBS 최대 주주 등극 – 2023.09.12, Financial Times

스위스의 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역사적인 인수를 통한 이익으로 국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의 1.4 조 국부펀드가 UBS의 최대주주가 됐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관리처(NBIM)는 UBS의 지분을 이번 달 5% 이상으로 늘렸다. NBIM은 20여년 넘게 UBS의 주주이다.

S&P 캐피털 IQ에 따르면 이미 UBS의 상위 10대 주주였던 NBIM은 미국 투자자 Dodge & Cox와 블랙록을 제치고 최대 투자자로 올라섰다.

스위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34억 달러 규모의 UBS의 CS 인수는 협상이 시작되고 6개월 간 UBS 경영진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다. 많은 대형 펀드 매니저들은 UBS가 복잡한 합병과정에서 협상 및 주주 수익실현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BIM은 지난 3월 CS의 붕괴 당시 상위 10대 주주였지만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왔다.

NBIM은 지난 4월 CS의 최종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대부분과 의장인 악셀 레만에게 반대표를 던지며 “주주들은 이사회가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때 이사회의 변화를 모색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가 합의된 후 몇 주 뒤, NBIM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 경영자는 스위스 Finews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정부는 CS를 구출하기 위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으며 금융 중심지인 스위스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한편 UBS는 6개월 전 CS를 구제하기로 합의한 후 주가가 30% 이상 올랐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UBS가 해당 거래에 대해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UBS가 CS 인수를 통한 회계이익에 은행업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인 290억 달러의 이익을 2FQ23에 보고했으며 이에 주가는 더욱 상승했다.

애널리스트들은 UBS가 CS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자사주 매입을 내년 재개할 것으로 예측했다.

〈 Norway's \$1.4tn oil fund becomes top UBS shareholder 〉
<https://www.ft.com/content/5105fd2b-9312-4647-9ada-2bbdb87e50b9>

사우디 국부펀드, 인도 사무소 설립 및 벤처 투자 추진 – 2023.09.12, Business Today

사우디 아라비아가 인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 현지에 국부펀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VC 를 통해 인도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할 계획을 밝혔다.

사우디의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 팔리는 몇 주 내로 인도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투자 기회를 탐색할 것이라고 월요일 밝혔다. 그는 대표단이 뭄바이, 뉴델리와 함께 구자라트 국제금융기술도시(Gift City, 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오늘 우리는 인도의 제안에 부합하고 인도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약속한다. 우리는 국가 간의 양방향성 투자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중이다.”고 밝혔다.

투자부 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도 참석한 인도-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이루어졌다.

사우디 장관은 또한 VC 를 통해 사우디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인도 스타트업 관련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장관은 “희망적이게도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는 사우디의 VC 펀드와 이에 상응하는 인도의 파트너 간 공동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도와 사우디 두 시장을 지렛대로 삼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스타트업에 VC를 통한 자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우디의 대인도 투자는 '00 년 4 월부터 '23 년 6 월까지 약 32 억 2 천만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주로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 의 주도로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난 인도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도 상공부 장관은 상공회의소와 투자진흥원, 그리고 상공부의 일부 관료들이 협력할 사무소를 리야드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장관은 “우리는 PIF 를 비롯해 다른 국부펀드, 그리고 투자자들을 Gift City 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초청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 6 개월 안에 사무실 건립과 실제 투자를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자라트의 Gift City 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다목적 경제 특구다.

〈 Saudi Arabia to invest in Indian start-ups, will set up Sovereign Wealth Fund office in India 〉
<https://www.businessstoday.in/entrepreneurship/news/story/saudi-arabia-to-invest-in-indian-start-ups-will-set-up-sovereign-wealth-fund-office-in-india-397996-2023-09-12>

미국 공적 연기금들, 주식 통한 투자 수익률 복구 – 2023.09.13, P&I

미국 공적 연기금들은 6 월 30 일 회계연도 말 기준 인상적인 수익률을 발표했다. ‘23년 운용자산 10 억 달러 이상인 65 개 대형 연기금들의 연 중간 수익률은 +7.6%로 전년 -5.2% 대비 좋은 성적을 남겼다. 모든 연기금들이 2.2%~11.7% 사이의 흑자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대체 투자에 노출이 적은 기금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다.

미국 내 주식들은 꽤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Russel 3000 지수는 6 월 30 일 기준 +19% YTD 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 -13.9% YTD 대비 1 년간 약 33%의 상승세를 보여줬다. 또한 블룸버그 미국 채권지수는 -0.2% YTD 로 연초대비 보합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12 개월간 -10.3%의 수익률을 보여준 것과 대비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

투자 자문회사 Wilshire Advisors 의 토마스 토스는 “시장에 다양한 변동성이 있음에도 우리는 주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고 말하며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빅테크 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강조했다. 또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적자를 기록했다.” 고 밝히며 이번 회계연도 기준 Cambridge Associates 의 미국 사모펀드 지수는 -1.5%, NCREIF 부동산 지수는 -10.7%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기금들 또한 전통적인 투자처인 상장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 기금들이 대체자산에 투자한 기금들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자 자문회사 Callan 의 부회장 제이 클롭퍼는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자자들은 아직 지속적인 평가절하를 거치고 있으며 ‘23년도의 3 분기 및 4 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연기금들 또한 주식 시장에서 많은 수익률을 올렸다. 133 억 달러를 관리하는 루이지애나 주 직원 연금 시스템 (LASERS, Louisiana State Employee Retirement System)은 이번 회계연도에서 미국 연기금들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며, 이번 년도에 +11.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주식분야 투자에서 +17.4%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채권부문에선 +7.7%, 대체투자부문에선 +4.3%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LASERS 의 CIO 인 바비 빌은 “펀드의 7%를 투자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33% 상승하며 큰 수익을 가져다 줬으며, 펀드의 20%를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는 +8%의 수익률을 보였다.” 고 밝히며 LASERS 의 52%는 상장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형 연기금들 중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낸 오클라호마 공공 직원 연금은 111 억 달러를 관리하며 이번 년도에 +10.9%의 수익률을 달성, 벤치마크 수익률인 10.5%를 넘겼다고 알렸다. 이는 작년 -14.5%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준 것에 비해 좋은 성장을 이뤘다. 또한 연금은 대체 자산이나 비상장 자산에는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자산 99.6%의 미국 내 대·중소기업과 국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성장으로 이뤄낸 수익률이라고 알렸다. 이는 약 20%의 자산만을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한 인디애나 공공 연금의 +2.2% 수익률과 대비된다.

한편 미국 내 가장 큰 연기금들인 캘리포니아 주 교직원 연금과 직원 연금은 각각 +5.8% 및 +6.3%의 성적을 거뒀으며 이는 대형 연기금들의 동기간 수익률 중간 값인 +7.6%에 부족한 기록이라고 알렸다.

〈 U.S. public pension funds stage comeback in latest fiscal year 〉
<https://www.pionline.com/pension-funds/us-public-pension-funds-stage-comeback-latest-fiscal-year>

코네티컷 주 연금신탁펀드, FY23 8.5% 수익률 기록 – 2023.09.14, P&I

코네티컷 주의 연금신탁펀드는 23년 회계연도 동안 벤치마크 5.9%를 상회하는 +8.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493 억 달리를 투자하는 당 펀드는 3, 5, 10년의 기간 동안 각각 +7.6%, +6.1%, +7.4%의 연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모두 벤치마크인 6.9%, 6%, 7.1%를 상회했다.

펀드는 FY22에 -7.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 별 수익률을 짚어보면, 선진국 주식은 +20.4%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주식이 +19.9%, 인프라 및 원자재 +11.3%, 신용 채권 +9.9%, 개발도상국 부채 +9.2%, 개발도상국 상장 주식 +6.3%, 유동성 자산 +4.3%, 그리고 사모대출 +3.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및 사모펀드 투자에선 적자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각각 -2.8% 및 -2%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다른 적자 부문으로는 위험관리전략 -1.1%와 채권 -0.4%를 보였다. 하지만 이 부문들은 벤치마크를 상회하거나 약보합하여 기대치에 응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현재 기준 코네티컷 연금신탁펀드의 실제 자산 배분은 미국 주식 30.7%, 채권 14.4%, 선진국 주식 12%, 사모펀드 11.2%, 부동산 7.6%, 개발도상국 6.2%, 신용 채권 5.3%, 위험관리전략 4.3%, 인프라 및 원자재 2.3%, 개발도상국 부채 1.4%, 유동성 자산 1%이다.

〈 Connecticut pension fund returns 8.5% for fiscal year 〉
<https://www.pionline.com/pension-funds/connecticut-pension-fund-returns-85-fiscal-year>

Part II

Fed/Issue Watcher

미국 연방준비제도, 국제 금융기관 연구 및 최신 이슈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국제 금융기관(FRB, ECB, BOE, BOJ, IMF, WB, BIS, CEPR, NBER 등)에 게재된 최근 연구를 혹은 글로벌 언론기관의 최신 기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몇몇 주제들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고온: 주택 시장의 새로운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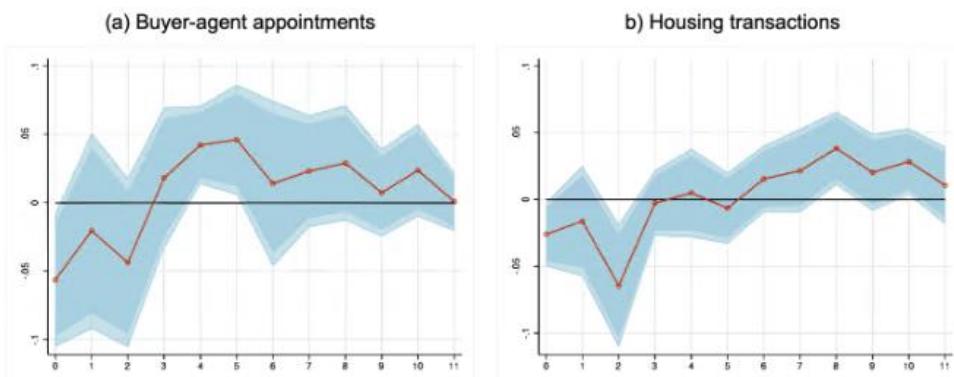
CEPR의 게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CEPR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가 주택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탈리아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면 약속 데이터와 온라인 광고 네이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고온의 날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온라인 검색이나 직접 집을 찾는 행위가 축소되고 평균 주택 가격이 영구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후자의 효과에 대해선 기후 복원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주택의 가격하락에 의해 유발되며 이는 에너지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주택으로의 선호 전환을 시사한다.

-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 제기되는 다각적인 문제(Weder di Mauro 2021 Blanchard and Tirole 2022, Natoli 2023)와 씨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영향이 예상치 못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 주택 및 기후에 대한 논의는 종종 해수면 상승의 장기적인 위험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건강(Carleton et al. 2022), 노동생산성(Somanathan et al. 2021), 인간행동(Busse et al. 2015)과 달리 극한의 온도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적 증거는 없었다.
 - 이번의 새로운 연구(Casciarano and Natoli 2023)에서 저자는 개별 주택 탐색 프로세스와 극한의 온도로 인한 총 충격 사이의 상호 작용을 조사했다.
 - 이를 위해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200만 건의 온라인 주택광고와 이태리 주요 도시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면 약속 일정을 추적하는 포괄적 데이터세트를 이용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 수준에서 일별 기온 데이터를 통해 한 달 동안 더운 날의 발생률이 증가하면 탐색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그림 1과 그림 2가 주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은 한 달 동안 일 평균 기온이 25°C 를 초과하는 날의 비율이 증가하면 매매 주택에 직접 방문한 횟수가 동시에 감소하고(그림 1a), 두 달 후(그림 1b) 주택 거래 횟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러한 영향은 더위 이후에 탐색이 재개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기온이 주거용 주택의 서로 다른 기후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 실제로, 판매용 주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적 기후 복원력을 가진 주택(에너지 효율(난방비 절감)적이며 폭염 시 열을 식힐 수 있는 실외공간이 있는 주택)과 나머지로 구분했을 때, 그럼 2는 비(非)기후 복원력을 가진 주택의 경우에만 극한 기온으로 인한 충격 이후 5개월 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2a). 반면 복원력이 있는 주택의 경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림 2b). 에어컨 시스템의 존재 등 다른 변경 가능한 기후 관련 특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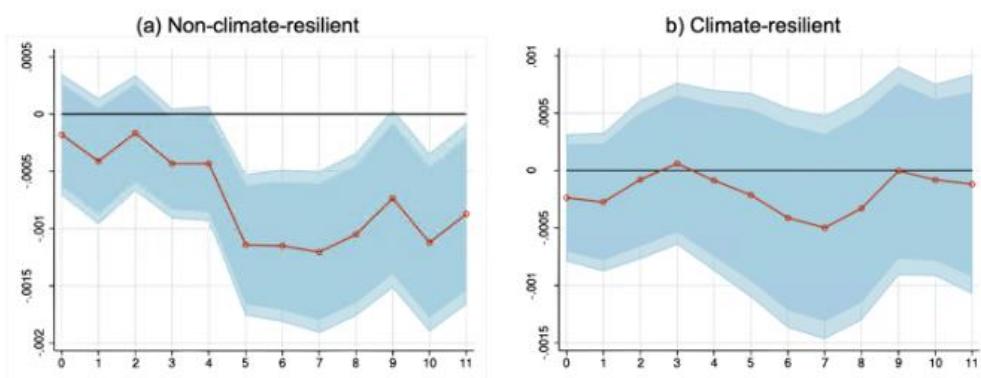
그림1 Effect of temperatures on housing search and transactions



Note: Vertical axis is expressed in percent.

자료: CEP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Effect of temperatures on the price of non-climate-resilient versus climate resilient dwellings



자료: CEPR,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대체로, 그림 1과 2는 더운 기온이 두 개의 별개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하나는 높은 기온이 단기적으로 주거 관련 탐색을 방해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칭 과정에서의 마찰로 작용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효과는 구매자의 선호를 극한의 온도에 더 잘 견디는 집으로 바꿔준다는 점이다. 이 서술은 기후 변화의 미래 경제적 위험에 대한 '웨이크업 콜' 효과(Hong et al 2023)와 일치한다.
- 결과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 첫째, 주택 유형 간의 상이한 가격 효과는 주택 수요의 이질성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다. 이는 각 도시의 제곱미터 당 유사한 가격을 가진 주택 풀 내에서도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선호 이동이 다른 주택 수요처 간에 광범위하게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 둘째, 판매 주택과 달리 고온은 임대시장에서 고온은 유의미한 부의 가격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는 임대 결정의 단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호도의 변화가 판매 주택과 달리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 주택 단위당 평균 가격 하락은 적지만 주택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잠재적으로 클 수 있다. 실제로 '23년 1분기에 1,230억 유로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주택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한 달에 하루 더 더운 날이 추가로 발생하면 약 0.8억 유로의 주택 거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CEPR의 연구 결과는 단기적 기후 관련 요인을 소개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지금까지 탐구되지 않은 주택시장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온도 변화는 광범위한 규모로 주택 탐색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행사한다.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자들이 기후 위험이 낮은 국가로 자금을 보내는 것과 동일하게 가계는 지속적인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후 안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Ferriani et al. 2023). 이러한 관찰은 가계에 기후 관련 금융 취약성을 둘러싼 의제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 Hot temperatures: A new player in housing markets〉

By Michele Cascarano, Filippo Natoli. 2023.09.17

<https://cepr.org/voxeu/columns/hot-temperatures-new-player-housing-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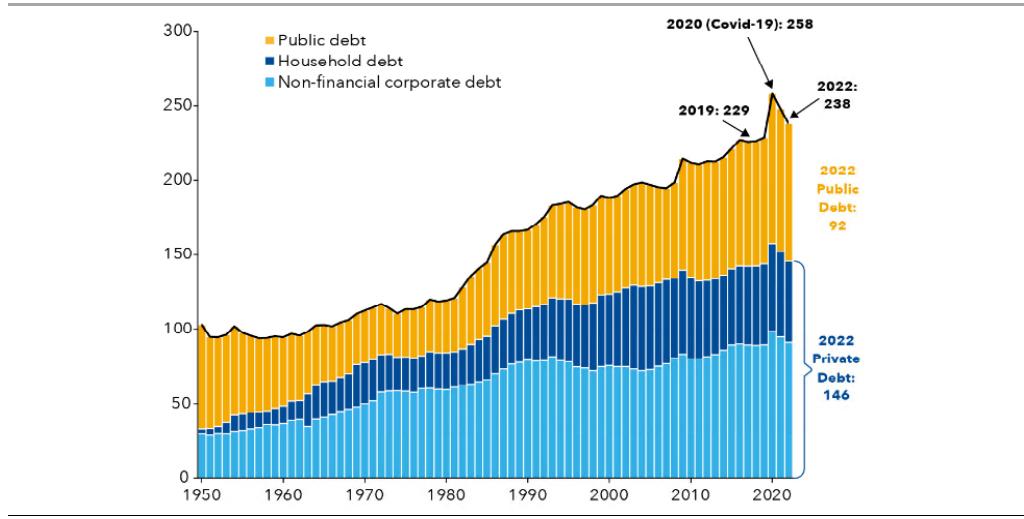
상승 추세로 돌아온 글로벌 부채

* IMF의 계시 내용을 요약, 편집했습니다. 저작권은 IMF에 있습니다.

IMF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전 세계 부채량을 분석했다. 2년 연속 부채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원래 높았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부채량은 235조 달러로 2019년 대비 9%p 높다. 중국의 늘어나는 부채는 전 세계 부채량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채 대 GDP 비율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2007년 이후 부채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여력을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협용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 2020년 경제 반등 및 예상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채는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판데믹에 접어들며 경제 성장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방어를 위해 사용된 국고는 공공부채를 계속 끌어올렸으며 높은 재정수지 적자가 유지되는 원인이 되었다.
 - 결과적으로 지난 2년동안 공공부채는 판데믹 대응방안의 절반 수준인 GDP 대비 8%p 하락했다. 가계 및 비금융 기업 부채가 포함된 민간부채는 GDP 대비 12%p 하락했으나 판데믹 동안 늘어난 부채량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림3 Public and Private Debt in Percentage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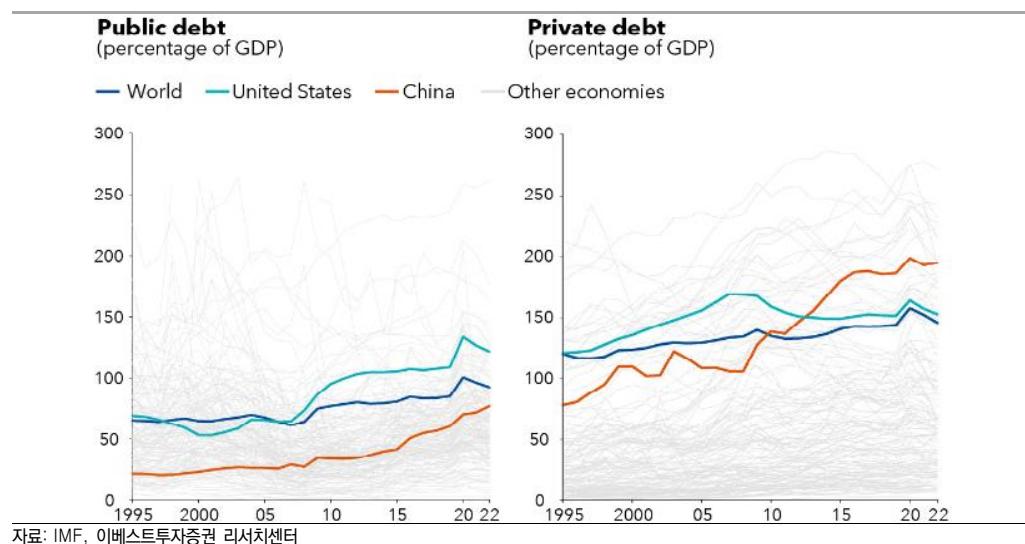


Forces in debt trends

- 판데믹 이전 전 세계 부채 대 GDP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말 대비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과 비교해 세 배가 올라 GDP의 9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91조 달러에 달한다. 민간부채 또한 1960년대와 비교해 세 배가 올라 GDP의 146% 또는 144조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특히 중국이 세계 부채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출량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으며 부채 대 GDP 비율이 미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다. 비금융 기업 부채 부문에선 중국이 2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4 World Average, US, and China, Public and Private Debt as Percentage of GDP



- 개발도상국의 부채량 또한 최근 2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들의 부채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낮지만, 2007년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절반 이상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높은 부채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20% 이상 국가들의 부채는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

Tackling debt vulnerabilities

- 각 국의 정부들은 부채 취약성을 줄이고 장기 부채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간부채의 경우 가계 및 비금융 기업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등의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공공부채의 경우,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로 지출의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부채를 이끌 수 있다.
- 개발도상국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 지속불가능한 부채에 대해선 국가 재정제도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G20의 공통 부채처리 프레임워크 (G20 Common Framework)를 통해 다방면의 채무 재조정과 부채탕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중요한 점은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여력을 창출하고 신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잠재적 생산을 증대시키는 노동 및 제품 시장에 대한 개혁이 그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다. 탄소 세제를 포함한 조세에 대한 국제 공조는 공공 재원 조달에 대한 압력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Global Debt Is Returning to its Rising Trend 〉

By Vitor Gaspar. 2023.09.1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9/13/global-debt-is-returning-to-its-rising-trend>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종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Vol 209. 2023. 09. 12 (화) ~ 2023. 09. 18 (월)

이 자료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국제 금융기관(IMF, BIS, BOJ, ECB, CEPR 등) 및 기타 연구센터에서 최근 게재한 연구물과 글로벌 집행기관들(연기금, 국부펀드, 대학기금 등)의 최신 동향을 정리 및 번역한 것입니다. 주요 국제 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진 주제가 없는 주에는 해외 언론사, 운용사의 칼럼, 오피니언, 특집기사 등에서 발간기간에 제한 없이 눈에 띄는 주제를 요약, 인용, 편집을 거쳐 데이터를 덧붙여 정리했습니다.